

사설

무상급식 주민투표, 신중해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함에 따라 서울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는 서울시 유권자들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무상급식은 무상보육과 무상의료 등 이른바 무상시리즈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슈로서, 내년 총선과 대선의 핵심 공약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권과 야권은 무상복지 실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방법, 대상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시가 단계적 실시와 전면 실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차원을 넘어,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은 물론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등 주민투표 승리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야권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주민투표발의 효력 정치 가치분 신청과 투표안하기 운동 등을 벌일 태세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복지구상을 무상복지 포퓰리즘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고, 민주당은 전면무상급식이 벽에 부딪치면 내년 선거의 핵심 공약이 될 보편적 복지구상에 중대한 차질을

을 빚게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에 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념적 대결 양상을 띠고, 내년 총선과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편적 복지와 복지 포퓰리즘 주장이 나름대로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서 여야 정치권이 과도하게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서울시와 수해책임론 공방의 중심에 있는 오세훈 시장이 180억이나 드는 주민투표를 밀고 나간다면 대권을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당위가 있다 하더라도 명분과 절차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시급한 것인지도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또한 투표를 통한 서울시민의 분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핵심 이슈이다. '분배와 복지 없이는 성장도 어렵다'는 인식에 공감하느냐의 여부도 국민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론에 동의한다면, 무상급식에 대한 여야의 인식 차이는 토론과 절충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의 진지하고, 사심 없는 성찰을 촉구한다.

여야 '무상급식 주민투표' 충돌

황우여 "여당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김진표 "투표에 드는 비용 수해복구에 써라"

서울시가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에도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24일 치러지는 주민투표 결과가 내년 총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주민투표 총력 지원에 당 지도부 사이에서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일단 중앙당 차원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CBS와 전화 통화에서 "서울시쪽에서 중앙당에 지원 요청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리하게 주민투표 실시를 강행해 내년 총선을 앞둔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여전한데다, 유례없는 폭우 피해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투표 지형이 더욱 불리해졌다는 우려가 당내에 상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CBS와 전화 통화에서 "수해 때문에 서울 민심이 상당히 안좋은 상태인데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한 것은 당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주표법상 중앙당 차원의 지원 방법이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는 것도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CBS와 통화에서 중앙당의 지원 방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나름대로 결단을 했으니 지원을 해야겠지만 중앙당에서는 당 회의 발언 등을 통한 지원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서울시 폭우 피해로 코너에 몰린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집중하면서 무상급식 투표

무효화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런 물난리 와중에 주민투표를 강행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서울시민의 분열을 부추기는 주민투표를 강행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투표 비용으로 드는 182억원도 수해 복구에 써야한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다.

이인영·조배숙 최고위원도 각각 "오 시장이 수해방지 예산을 줄였다는 의혹이 있는 마당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최악의 비정당 시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한 주민투표 발의를 중단하고 수해 방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덕·최철기자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진전 1일 오후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진전' 개막식에서 한 관람객이 전시된 사진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시스

美 부채한도 증액 협상 타결 "향후 10년간 재정지출 1조 달러 감축
부유층 세제혜택 폐지 등 손질" 밝혀

마감시한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이 타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일 (한국시각)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 공화 양당과 상하 양원이 협상을 타결했다"며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의 재정지출을 감축하기로 했다"며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후 가장 낮은 지출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자문제의 근본해결책은 균형적이어야 한다"며 "공화당의 반대가 있지만 부유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밝힌 뒤 "역시 민주당의 반대가 있지만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제도) 제도 등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당적 위원회가 구성돼 오는 11월까지 추가 예산 감축방안을 마련해 의회표결에 부칠 것"이라며 "이 단계에서는 모든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이날 소속 의원들과 전화 회의를 갖고 잠정 타결안에 대해 설명했다. 베이너 의장 측은 따르면 정부 재량예산을 즉시 삭감하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9170억 달

리를 삭감하고 동시에 국가부채 한도를 9000억 달러 증액해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양당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를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추가 예산 감축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위가 마련한 예산 감축규모가 국가부채한도 증액분 이상일 경우 행정부는 국가부채한도를 1조 5000억달러 추가 증액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상하 양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부채 한도 증액협상 타결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워싱턴=이기범 특파원 hope@cbs.co.kr

대선후보 지지도 '문재인 상승세' 뚜렷

민주 손학규 후보와 오차범위 선두경쟁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문 이사장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야권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7월 넷째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문재인 이사장은 전주보다 1.1%p 상승한 8.2%를 기록해 8.7%를 기록한 손학규 대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부동의 1위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로 33.6%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지했으나 문 이사장과의 격차가 2.1%p로 더 벌어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3,750명을 대상으로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번호부 미등재가구 포함 임의걸기)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6%p였다.

최철기자 ironchoi@cbs.co.kr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 '하이서울'



직접 출력하는 디지털 사진인화기 '오토포토'



㈜엠펜미디어솔루션(대표 최재승 www.m-p.com)은 국내 처음으로 디카 및 폰카로 찍은 디지털 사진을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디지털 사진인화기 '오토포토'를 개발하여 유통 판매하는 디지털 포토 전문기업이다. '오토포토'는 디카 및 폰카 사진을 멀티 메모리카드 리더/CDRW/DVD리더/USB/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직접 17" 모니터에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작하여 사

진을 예쁘게 꾸며 고품질의 사진을 즉석해서 7초만에 인화 출력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다양한 장소에 무인자판 기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오토포토'는 다양한 색 보정이 가능하며 사진의 크기와 위치를 직접 조절하여 여권사진, 반명함, 증명사진, 공무원증 다양한 사진출력을 지원하며 4년 연속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되었다.

문의 070)4032-3020



"아르페지오는 정서적인 감염이다"



<아르페지오>(대표이사 신종철, www.arpeggio.co)는 유럽풍 침구전문브랜드를 모토로 홈텍스타일 패션의 본고장인 유럽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지향하는 침구 프랜차이즈 업체이다. 각종 아웃소싱과 해외 OEM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요즘의 추세와는 반대로, 100% 국내 생산을 고집하고 소재 뿐 아니라 결을

로 드러나지 않는 속 중전재마저도 항공처리된 고급 F/T솜을 사용하고 있다. <아르페지오>는 믿을 수 있는 제품과 차별성 있는 디자인, 친환경 향균소재에 대한 기술력, 소비자 만족도 등을 인정받아 2010 하이서울브랜드 신규 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문의 02) 917-7979



SBA / 노컷뉴스 제공 http://hiseoulbrand.sba.kr

하이서울브랜드는 서울특별시가 인정한 우수기업들의 공동브랜드입니다

노컷뉴스

www.dailynocutnews.co.kr

등록번호 서울가 00061

발행·편집·인쇄인	이정희	기사제보	02)2650-1136
광고마케팅본부장	김두호	광고문의	02)2650-1111
편집국장직대	배기수	사업문의	02)2650-1188
광고마케팅국장	정성학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1 기록교방송 18층 / 대표전화: 02)2650-1100 FAX: 02)2650-1119